

절세의 위인을 따르는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마음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범식



이역땅에서도 조선민족의 긍지를 안고

지난 4월 13일 우리가 중국 심양에 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를 찾았을 때였다. 우리와 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룡녕지구협회 성원들은 정말 반갑다고, 며칠전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에 접하고 커다란 환희에 휩싸여있는데 조국에서 온 기자선생들을 만나니 그 기쁨이 더 커지는것 같으며 저마다 잡은 손목을 놓을줄 몰랐다. 황영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룡녕지구협회 회장은

《해마다 맞이하는 태양절이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감격속에 맞이하는것으로 하여 올해에는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룡녕지구협회 보고회를 시작하러던 참이라며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보고회장에 모인 재중동포들의 열굴마다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신 감격과 흥분으로 한껏 상기되어있었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재중동포들의 가슴부푼한 회화와 긍

지를 우리는 룡녕지구협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장에서 만난 리훈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룡녕지구협회 회장이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이하는 재중동포들의 가슴가슴은 세기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환희로 가슴부풀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위인적품성과 탁월한 정치실력에 의해 그 위력이 만방에 떨쳐지고 세기를 주름잡는 비상한 속도로 천하제일강국으로 솟아오르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상은 우리 청년들에

게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습니다.》 전시회장에서 만난 다른 재중동포들도 인상깊었던 조국방문의 나날 아버지수령님의 이념이전의 숭고한 리념을 한몸에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인민의 복리를 위한 창조물들이 수놓여있어 일떠서고있는것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있고 권세있는 사람들만이 향유할수 있는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과 같은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

지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마음껏 즐기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으며 저마다 입을 모았다.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어 태양절이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더욱 빛나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권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룡녕지구협회 사무장의 말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재중동포들의 신념의 맹세를 읽을수 있었다.

사랑많은 모범지구협회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룡녕지구협회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15만여km²라는 룡녕성의 광대한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룡녕지구협회산하 각 지부대표들이 태양절을 맞으며 앞을 다투어 한달음에 달려왔던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적으로 소문난 모범지구협회의 자랑을 안고, 룡녕지구협회로 말하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을 잘하고 있는것을 비롯하여 남달리 자랑거리가 많다. 지난 시기 룡녕지구협회에서는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였다. 여기에서는 김명덕, 리춘자, 엄순자, 김태산, 김용수 동포들이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고있다. 사실 이역땅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조국을 위한 애국사업에 헌신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

이 아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찾아주고 빛내여주시는 은혜로운 조국이 있어 이역땅에서도 조선사람의 긍지를 안고 가슴펴고 살아가고있다는 생각,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말로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탬을 주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너도나도 이 사업에 발벗고나섰다. 그뿐이 아니다. 이곳 지구협회에서는 동포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있다. 얼마전 대련시에 사는 황정숙동포가 심하게 앓을 때 황영두회장과 권현사무장이

수백리나 되는 길을 기차를 타고 달려가 하루빨리 병을 털고 일어나도록 성의껏 도와준 사실, 방금시에 사는 한 동포가 병에 걸렸을 때 리춘자 심양시지부 부지부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찾아가 따듯이 위로해준 사실을 비롯하여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다. 이 나날 룡녕지구협회는 모범지구협회의 청초를 수여받았으며 특히 심양시지부는 3중모범지부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한자리에 모여앉아 지난 한해동안에 거둔 성과와 경험들을 나누며 이들은 약속했다. 다음해 태양절에는 보다 큰 자랑을 안고 또다시 만나자고.



3중모범지부의 영예를 지닌 룡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 회원들



《사향가》와 《조국찬가》를 부르는 동포들

좌담회

《사향가》와 《조국찬가》에 어린 송고한 애국세계

중국동북의 심양시에 머무르는 나날 《사향가》와 《조국찬가》를 부르며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에 넘쳐있는 재중동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여러분들이 부르는 《사향가》는 아버지수령님의 열화같은 조국애의 감정이 뜨겁게 반영되어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리춘자: 좋은 말이다. 누구나 두고온 고향산천과 부모형제들을 잊지 못한다.



지난날 정든 고국산천을 떠나 낯설은 라향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해외동포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사향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건진 세

참가자
윤영화: 룡녕지구협회 대련시지부 사무장
리춘자: 룡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 회원
김정남: 룡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 회원

월 한시도 잊으신적 없는 정은 고향집과 부모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뜨겁게 담겨져있다. 수령님께서 사랑하신 《사향가》를 들을 때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쳐오신 그이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이 어려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우리 수령님의 《사향가》에 대한 애착의 세계는 비단만경애에 대한 사랑에만 일당아있을것이 아니었다. 달 밝은 밀영의 밤 우동불가에 서 《사향가》를 부르시며 수령님께서 마음속에 안아보시던 아름다운 만경애는 곧 삼천리금수강산이었다.

윤영화: 실로 우리 조국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주제가인 《사향가》와 함께 승리의 한길로 걸어왔다고 본다.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경란을 금치 못하는 놀라운 모습은 수령님의 한평생의 선봉속에 비껴있던 리상인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것을 주시였는가. 해외동포들의 참다운 삶의 품인 존엄높은 불패의 자주강국을 세워주시었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체제를 마련해주시었다.

한평생 멀고 험한 길을 걸으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세워지신 무수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을 위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살림집, 학교, 병원들... 그 하나하나는 그대로 우리 수령님 한평생 안



고하신 애국의 선물의 산아이다. 기자: 최근에 나온

《조국 찬가》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 인민의 리상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송고한 애국의 세계를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고 본다.

김정남: 그렇다. 절세위인들의 한평생의 념원과 리상을 오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시며 우리 조국을 으뜸가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여가고계신다.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로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는 《조국찬가》의 구절구절에는 인민의 행복, 인민의 꿈, 인민의 미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그 얼마나 진하게 흐르고있는것인가.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물론 우리 재중동포들도 조국의 품은 인민의 소중한 모든 꿈을 감싸안고 꽃피워주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노래하며 사회주의조국 만세를 신장으로 리치고있는것이다.

《사향가》와 《조국찬가》의 합창소리를 통하여 세상사람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누려가는 조선민족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며 무슨

힘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오르는지 잘 알게 될것이다. 하기에 《사향가》와 《조국찬가》를 부르는 우리 재중동포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하늘에 닿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송고한 념원이 어린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반드시 일떠설것이다. 조국이자 곧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시고 우리 원수님이시라는것은 우리 재중동포들이 생활을 통하여 심장에 새긴 불변의 진리이다.

리제의 심장속에서 끝없이 울려퍼지는 《사향가》, 《조국찬가》와 더불어 우리 조국은 영원무궁할것이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사람은 한생을 산다. 길어도 짧아도 한번밖에 오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어느덧 내 나이 64살이 되 고보니 지나온 인생행로가 자꾸만 돌이켜지고 그것을 가슴속에만 묻어둘수 없어 펜을 들었다. 이것이 딸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젊은 과학자들을 위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의 고향은 일본 미에현 요가치시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국살이로 시작된 삶은 기구한 나의 운명을 말해주는듯싶기도 하다. 나의 불운한 운명은 아버지때부터 강요되었다고 할수 있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출생한 나의 아버지는 토목로동자로 일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어느 가정이라 할것없이 겪은 풍파는 우리 가정에도 불어왔다. 아버지는 21살때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한다.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아버지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되자 열심히 동포사회를 위하여 일하였다. 아버지는 90살이 넘는 오늘날까지도 총련 아이찌현 요

수기
내 인생의 어제와 오늘
교사까지도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내가 3살때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항상 일밖에 몰랐던 아버지, 그로 하여 나의 어린시절 추억에는 애뜻한 부모사랑이 자리잡을수가 없었다. 10살이 되던 1960년 1월나는 제5차 귀국선을 타고 조국의 품에 안기었다. 조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형제들과 함께 귀국하던 그날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조선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한번도 보지 못한 조국땅을 처음 밟던 그날, 비록 어린 나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짝 메여오르던 그 감정이 일생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새겨졌다. 나는 강원도 원산에서 인민학교(당시), 중학교, 전문학교까지 졸업하였다. 그후의 학자가 되었다는 소원대로 평양의대학(당시)에 입학하였다. 조국에서는 무엇이나 소원하면 이루어졌고 무슨 꿈이든 꾸면 현실로 이루어졌다.

밤을 새워 공부해도 마냥 즐겁기만 했고 하루하루가 희망에 넘친 날들이었다. 설움에 겨운 이국살이, 타향살이의 어제날흔적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의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 연구사로 배치받았다. 내 성과를 이룩하였고 박사학위에 이르렀다. 학업에 힘들고 몰랐고 웃음속에 일을 했다. 올해가 내가 연구사로 일한지 만 4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나는 여러건의

가치있는 논문들과 난치성 질병에 병약물들을 연구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고 박사학위, 2.16과학기술상 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었으며 높은 국가수훈도 받아안게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이름있는 과학자들을 만나 보기도 하고였고 많은 경험도 쌓았으며 수차례 걸쳐 국제의학과학토론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내가 진정으로 느낀것은 어머니 내 조국이 제

일이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이었다. 이국살이로 고생했던 소년, 업마들은 불쌍한 소년이어제날의 나의 운명이었다면 조국의 품에서 마음껏 사색의 나래를 펴며 연구사업을 하는 과학자, 손주의 바이울린연주모습을 보며 즐기는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가정의 세대주가 오늘의 나의 운명이다. 나와 함께 귀국한 만행과 만수이, 학대동생들도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바라던 초소에서 일하고있다. 총련 지방본부 위원장으로 일하고있는 둘째형(하수광)과 신용조합 리사장으로 일하고있는 남동생(하수용)은 조국에 있는 형제들의 성장을 두고 많이 놀라워하고있다. 나는 자식들과 연구소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자주 말해주곤 한다.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만이, 우리 조국에서만이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활짝 꽃피울수 있으며 행복한 인생을 누릴수 있다고... 이것이 내 인생의 어제와 오늘이 말해주는 진리이다. 의과학원 의학생물학 연구소 실장 하수길



하수길 선생 (왼쪽에서 두번째)

고국의 경제성장은 커다

나는 사업상선계로 고국을 자주 왕래하곤 한다. 그때마다 느끼는것도 많고 생각되는것도 많다. 고국동포들이 즐겨 말하듯이 조선은 약이 줄수록 젊음으로 비약하고 있다. 어느 공장, 기업소를 가보나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적국 추진되어 한때의 동음이 울리고있으며 로동자들은 회열에 넘쳐 락천적으로 일하고있었다. 그런가하면은 하과학자거리와 농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건설공사가 최단기간내에 완공되었다는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고국의 잠재력이 참으로 커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고국과 기업활동을 하게 된것은 강성국가건설에 적은 힘이나마 보탬을 주고싶은 마음에서이다. 고국이 머지않은 앞날에 경제강국으로 일떠설수 있다는것이 우리들의 확신이다. 나의 뇌리에 새겨진 고국동포들은 지식수준도 높

고 머리로 비상하며 재간도 좋다는것이다. 더우기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배짱이 센 강자들이라는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고질적이고 악랄한 압살책동으로 겪는 경제적곤란이 여간 아니지만 반드시 잘살

은 나라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래서 나는 작년에 세계 기업가들이 모인 어느 한 자리에서 고국의 경제형편을 두고 시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자랑하지만 조선처럼 미국의 경제체제를 모방했던 어떻게 되었겠는가. 아마 열백번도 말하였을것이다. 그런데 공화국은 미국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책에서도 자기의 체제를 지키며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지 않는다. 공화국을 대하는에서 사실그대로 보고 공정하게 말해야 한다고말았다. 예로부터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할 강성국에서의 그날이 반드시 올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안고 나는 힘차라는데 고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동포기업인으로 살겠다는것을 말하고싶다.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표성룡

